

■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3>

부득자전(不得自專)

내 멋대로 할 수 없구나!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사람들의 삶은 아우성으로 일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생존경쟁(生存競爭)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이다. 이기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이기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고, 또 출세를 하려고 야단법석이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리를 차지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아마도 제왕의 자리가 이러한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자리를 차지하면 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 다 채워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까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좀 잡았고, 큰 뜻을 품었다고 하면 약전고투를 마다하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끝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성공하였다고 말한다.

그런한 사람은 역사에 많이 등장하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제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성공한 사람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다. 파락호 출신으로 한(漢)왕조를 건설한 유방(劉邦)의 경우가 그러하니, 사람들은 그의 일대기를 입에 올려서 칭송한다. 또 명(明)왕조를 세운 주원장(朱元璋)도 천하의 고아가 되어 먹을 것이 없어서 살아가는 방편으로 절에 들어가서 3년간 탁발승 노릇을 하다가 원말(元末)의 혼란 속에서 또 먹고 살기 위하여 도적집단에 들어갔고 결국은 이를 기초로 왕조를 건설하였으니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약전고투하여 제왕에 오른 사람이라도 한고조나 명태조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가운데 5호 16국 시절에 후조(後趙)를 세운 석륵(石勒, 274-333)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갈족(羯族) 출신이었으니 그 배경도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몸매 뻥 성실함 때문에 이웃의 신망을 얻어서 그에게 자원(資源)을 공급해주어서 열심히 경작하며 일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은 다시 그를 어렵게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흉년이 들고 대가군(大鐵籠)이 닥치자 하는 수 없이 도망하였고 결국에는 노복(奴僕)으로 팔려 가는 신세가 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성실함과 뛰어난 것으로 주인으로부터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결국에는 혼란한 당시의 시국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마씨의 진(晉)은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흉노 출신의 유연(劉淵)이 자기 외가인 한(漢)을 다시 일으킨다는 명분으로 후에 전조(前趙)가 되는 한(漢)을 세우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북방지역에 자리하였던 이른바 오호(五胡)들이 만리장성을 넘어

서 황하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석륵은 유연의 전조에 들어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였다.

전조(前趙)에서 석륵은 많은 전공을 세우고 그 직위도 올라갔지만 전조를 세운 유연이 죽으면서부터 내부에서 권력을 둔 치열한 다툼이 일어났다. 유연의 혈족이 아닌 석륵은 비록 전조 안에서 가장 큰 전공을 세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배척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권력 다툼 속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발전할 수 없었던 석륵은 드디어 서기 319년에 전조로부터 독립하여 정권을 수립하였다. 후조(後趙)였다.

석륵은 노복이 되는 역경을 딛고 왕조를 세웠고 제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감개무량하기도 하였다. 그는 오직 출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싸웠고 그 전공으로 승승장구하였던 세월에 아마도 그가 본 최고의 자리인 제왕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의 왕조를 세우고 그 영역도 중원지역을 거의 다 차지하고 중요한 지역인 업(鄴)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성공하였고, 그 최종목표인 제왕까지 되었으니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 그리하여 새로이 궁궐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참모들은 그의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였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해야 할 것이 있는 법인데, 황제인 석륵이 먼저 궁궐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선후가 잘 못되었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간언을 하였다. 그 가운데, 그래도 자기가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하여 정위(廷尉) 벼슬에 앉힌 속환(續咸)이 마음 아프게 간언(諫言)을 하였다. 속환만은 항상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자기가 하는 일에 반대하였으니, 배신감마저 들었는지 석륵은 속환의 목을 베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중서령(中書令)인 서광(徐光)이 말하였다. “속환이 말한 것은 채용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역시 마땅히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경(卿)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곧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서 목을 베겠습니까?”

속환이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의 목을 베다면 석륵은 간언(諫言)하는 사람이면 목을 베는 폭군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비록 속환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지 않으면 나라꼴이 안 될 거라는 말이었다. 화가 났지만 제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억지로라도 참아야 된다는 말이었다.

제왕에 오르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궁궐 짓겠다는 생각을 일단 접어야 했다. 그리고 석륵은 한탄하며 말하였다.“임금이 되어서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니! 필부라도 집안 가득하게 비단 1백 필을 가졌다면 이를 팔아서 집을 사려고 할 것인데, 하물며 나는 천하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천자가 되어 천하를 가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의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마음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곧은 말을 하는 신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본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라도 바라면서 곧은 말을 한 속환에게 비단 1백 필(匹)과 곡식 1백 곡(斛)을 하사하였다. 아마도 속환에게 상을 내리고 싶지는 않았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모처럼 오른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억지로라도 성군(聖君)인 척은 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천거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현명한 사람이 조정에 올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또 궁궐을 짓는 것 보다 명당(明堂)과 학교(學校)를 먼저 세웠다. 어쩌면 석륵이 제왕이 되고자 하였을 때에 제왕이 되면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왕이라 하여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왕이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이 권력을 쥐게 된 사람이면 꼭 돌아보아야 할 고사(故事)이다.

석륵이 살던 시대는 황제가 정치를 전제(專制)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도 황제는 천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했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있건 없건 최고의 통치자가 된 사람은 만백성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위대하고 성스러워서가 아니다. 그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쳐 대는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적으로 일을 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에 나와서 당선된 사람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석륵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석륵은 ‘내가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를 몰랐기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갔다. 그렇다고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멋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까?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라도 역사 공부들 좀 해야 할 것 같다.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918-1392) 건국 1100 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안동 태사묘에서 보존하고 있는 금동 재질의 유물 여지무늬 허리띠(보물 제451호) 등이 전시되고 있다. 고려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를 이어 과거의 전통을 융합했고,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이루었다. 세계사적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릴만큼 예성함에는 많은 외국인이 방문했다. 당시 동북아시아는 송, 요, 금이 교제되는 격동기를 맞이하였고, 역사상 유례없는 몽골 제국이 등장하는 시기였다. 신비스러운 비취색의 고려청자가 당시의 신기술에 대한 고려인의 도전을 보여준다면, 정교하고 섬세한 고려불화의 아름다움과 나전칠기의 멋은 고려인이 이룬 예술성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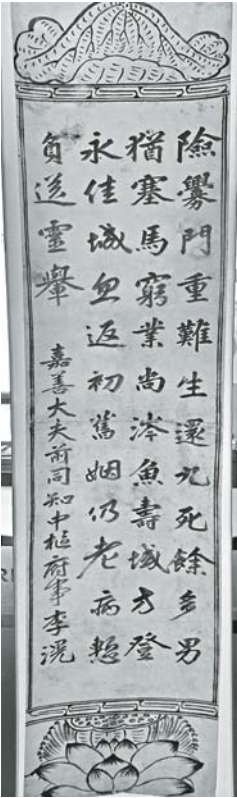


여지무늬 허리띠(荔枝文金帶, 태사묘 보존)

안동 가일 마을 분묘 출토 만사

450여 년 전에 퇴계 이황이 직접 쓴 친필 만장이 안동시 풍산읍 권곡의 묘에서 출토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본보 2018년 10월 1일자 5면) 그러나 당시 소개했던 만장은 만장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그 일부였다. 이는 출토된 만사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한계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부득이 일부만을 보도한 것이다. 권갑현(북아공파, 35세,

동양대 명예) 교수가 확인한 결과 퇴계의 만장은 이미 《퇴계선생전서유집권지일 외편退溪先生全書遺集卷之一 外篇》에 〈만사輓辭〉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었다. 다만 이번 만장의 발굴로 만사의 첫 문장에 해당되는 〈험문중난險難門重難〉이라는 문장 중에서 문집에 결락되어 있었던 두 번째 글자가 ‘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큰 소식을 얻게 되었다. 퇴계 이황의 만장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사輓辭〉
險難門重難(험문중난)
불행하여 가문이 아주 어려우셨는데
*둘째 글자가 문집에는 缺落되어 있었는데 이번 만사발굴로 變으로 밝혀짐

生還九死餘(생환구사여)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 돌아오셨네
多男猶塞馬(다남유새마)
아들 많으나 오히려 새옹의 말 같았고
窮素尚淙魚(궁업상잠어)
곤궁한 가업 여전히 빈 물 고기 같았네
壽域方登永(수역방등영)
태평성세로 이제 막 길이 오르시려는데
佳城忽返初(가성홀반초)
갑자기 본래 모습 무덤으로 돌아가셨네
舊姻仍老病(구인잉로병)
오래된 인척은 이제 늙고 병들어
慙負送靈輿(참부송영여)
부끄럼게도 영여 전송 저버렸네

출처: 《退溪先生全書遺集卷之一 外篇》
〈권갑현權甲鉉 역譯〉

謹 賀 新 年

전국 각지의 100만 족친님 2019 己亥年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권씨 15개 파종회 회장단회장님, 전국60여개 지역종친협의회 회장님, 전국32개 전국청장년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각지의 100만 족친님 2019 己亥年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12년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4반세기를 넘어 이어온 제30회 안동권씨 체육대회의 대회장으로 역사와 맥을 이을 수 있었음은 개인의 영광이기 보다는 지난1988년 100만권문의 본향에서 초대 대회장이신 권영상 회장(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안동청장년회의 송조애족 정신으로 제1회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후 각 지역에서 앳다튀 개최를 희망하였기에 4반세기를 지나 30년의 역사와

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을 이어온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가 1천년 1만년을 지나 멀리 멀리 영원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최지 혼자가 아닌 전국 각지의 100만 족친이 함께 함으로 그 맥과 전통이 1천 1만년을 지나 멀리 멀리 영원히 이어지길 100만 족친과 함께 간절히 소원 합니다. 끝으로 100만 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 순 근 강릉청장년회
권 성 범 경주청장년회
권 석 주 광주청장년회
권 태 훈 구미청장년회
권 오 준 능곡회(안동)
권 공 식 담양청장년회
권 태 은 대구청장년회

권 이 원 대전청장년회
권 오 룡 문경청장년회
권 정 원 봉화청장년회
권 갑 수 부산청장년회
권 섬 현 산청청장년회
권 만 집 상주청장년회
권 승 호 서울청장년회

권 성 범 시흥청장년회
권 혁 채 안강청장년회
권 대 능 안동청장년회
권 태 순 안양청장년회
권 종 철 영덕청장년회
권 진 철 영주청장년회
권 오 준 영천청장년회

권 오 준 예천청장년회
권 명 달 울산청장친회
권 창 구 원주청장년회
권 영 복 의성청장년회
권 병 택 음성청장년회
권 기 화 제천청장년회
권 정 욱 진천청친년회

권 영 봉 창원청장년회
권 오 갑 청송청장년회
권 광 택 청주청장년회
권 영 욱 합천청장년회
권 영 철 일본청장년회

安東權氏 全國靑壯年會長協議會 會長 권승호